

94. 7. 25 화요일

‘군 위안부’문제 적극 대처를

정부·지식인, 일본의 ‘아시아 교류센터’ 설립 막아야

지난 20일 오후, 35도를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청와대 앞에서는 더위로 인한 짜증이 가슴 떨리는 분노로, 급기야는 허탈한 한숨으로 바뀌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70살이 넘는 할머니들을 사복 차림의 전경들이 마구잡이로 버스에 몰아넣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들은 청와대를 구경하겠다고 때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애타게 질책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최근 일본 정부가 ‘아시아교류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이 문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여성들이었다.

이 모습을 틀림없이 지켜보았을 기자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1991년 8월 한 할머니가 50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처절한 ‘군위안부’ 생활을 고백한 지 3년, 이 비인간적인 전쟁범죄에 일본은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가마솥 같이 끓어올랐던 우리 사회는, 지금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자고 하면서 냉담해져 버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돈을 받지 않고, 도덕적 우위를 지키겠다고 점잖게 찬물을 끼얹었다. 한때 일본의 물밑치한 전후처리

를 질책하던 세계의 여론은 이제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 문제에 무관심해져서 한 듯하다.

어느새, 짓밟혀진 명예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노령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어두운 역사를 깨내 바로잡으려고 유엔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소수의 여성들만이 외롭게 남겨진 것이다.

이렇게 제풀에 시들해질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를 ‘아시아교류센터’ 설치로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기금을 모아 운영하면서 아시아 피해국의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준다면, 그것이 좋은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버젓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군위안부’ 문제에 전혀 관계없다고 했으나 증거자료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자 뒤늦게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일본 정부와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감추어놓았던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이 일본 정부의 안은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역사의 모습을 무성한 추측과 상처만 안은 채 그대로 묻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순제 이 문제를 50년이 지난 지

금 거론하지 않았던 것만 못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해버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귀중한 기회를 흘려버린 데 대해, 이 시대의 국민 전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영구미제로 남기는 데 공헌(?)한 이 정부에 남을 역사의 오점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국민들의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정부의 과오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저질러지는 것을 수차례 보아왔다. 이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범하고야 말 것인가. 피해자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아시아교류센터 설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기에 지식인, 양심적인 일본시민 모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올바른 판단을 회복해야 한다.

몇푼의 돈을 벌러 전쟁터에 딸을 내다팔고, 50년 뒤 또 몇푼의 미끼에 속아 다시한번 우리의 역사를 팔고말 민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의연하게 구명해 바로잡을 것인가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이효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